

像高八〇 頭高二七 肩幅 三四 膝幅 六三 胸幅 二〇 蓮座幅 八〇 頭光幅 四五 身光幅 七〇、板石 高 一二六 廣幅 一〇〇이다。

끝으로 本調査에 있어 三伏의 무더위에 案內와 많은 便宜를 주신 忠北道文化課의 李相弼氏와 鎭川郡敎育課의 鄭寅和氏께 感謝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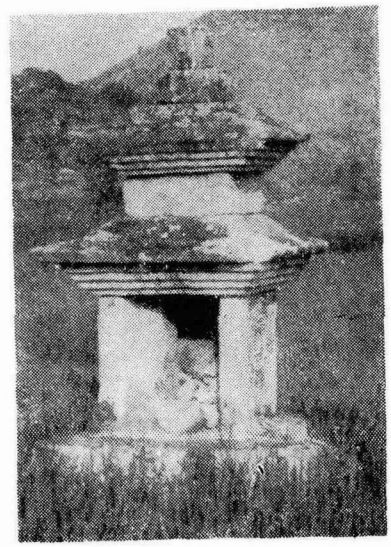
醴泉 下里의 石塔 二基

崔 成 鳳

醴泉邑에서 上里行 뻐—스로 一六㎞ 下里面所在地에서 下車、徒步로 東便 溪谷을 一㎞가량 오르면 塔洞에 이른다。

이 洞내 건너 논과 언덕에 新羅末 乃至 高麗初期로 推測되는 石塔 二基가 있다。其一은 現存三層으로 언덕 정자나무 雙樹사이에 끼이듯이 安置되어 있다。原位置는 約 十m 위쪽이었으며 日帝末 이곳에 移轉한 것이라 한다。全高 二·八m、下層屋蓋石幅 一m、上層屋蓋石幅 七三·五㎝ 造成樣式이 聞慶觀音里의 石塔을 彷彿케한다。

그곳 殷豊國民學校 敎師 趙宏濟氏의 말에 依하면 日帝末 이 塔을 移轉再建할時 塔속에서 「曲玉」이 二十四個나 發見되었다고 한다。그를 집에 두면 害를 입는다고 하여 隣近 밭에 버리었다고 하는데 이것을안 當時 下里駐在所 巡査部長(日人)이 몇개를 가져갔다 하며 나머지도 마저찾아 달라고 洞里사람들에게 金品까지 주어 찾았으나 영영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作業當時의 老人들이 아직 그 동네에 많이 살아있음)



其二는 其一보다 年代가 上廻하는듯 하며 風化의 度가 甚하다。規模는 若干 작은 느낌이나 其一보다 優秀하다고 생각된다。이 塔의 近處는 넓은 논으로 되어 있고 瓦片의 모습이 無數히 散在하여 있어 古寺址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생각하건데 醴泉邑에서 이 上·下里의 골을 들면서 大乘·龍門의 古刹에 이어 이곳 下里의 古寺址 위로 올라가서 上里 鳴鳳의 古寺등이 있는데 「曲玉」이 나왔다함은 注目할만하다。

一然禪師 浮屠의 調査

黃 壽 永

慶北 軍威郡 古老面 華水洞 麟角寺는 一然禪師의 住刹로서 그의 塔碑가 있어 有名하다。이 古碑는 現在 下端部만이 남아 있는 바 王羲之의 集字로서 人口에 膾炙된지 오래다。